한국불화의 그리움, 고려불화

'천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 월제혜담 스님 대 고려불화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3월 6일부터 19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려불화, 역사의 단층으로 인해 오롯이 이어지지 못했던 한 시대의 미술. 그것은 한국불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그리움이 아닐 수 없다. 고려불화를 복원하고 널리 알려온 혜담 스님의 전시회가 열린다.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열리는 '천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 월제혜담 스님의 대 고려불화전' 이다.

신작 3점과 함께 평소 보기 힘든 5m짜리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초청 전시 작품들과 11면 관음도, 양류관음도, 열반상, 오백나한상 등 스님의 대표작 6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불화의 역사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작품을 한 점도 볼 수 없다. 때문에 그 내용과 양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고구려 벽화 등 약간의 사료를 통해 '있었음' 을 짐작할 뿐이다. 백제나 신라의 불화 역시 마찬가지다. 754~755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통일신라의 '대방광불화엄경사경변상도' 1점 정도가 한국불화의 가장 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불화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려불화다.

고려불화는 고려 말기인 1270년부터 약 120년 동안에 걸쳐 집중 조성됐다. 이 시기는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조정이 강화도로 피신해 있던 시기이다. 고려불화가 위기에 처한 국운을 살리는 호국불화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려불화는 대부분이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색채가 매우 화려하면서 기품을 잃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교에 금니(金泥)를 개서 디테일한 선을 살리고, 복채법(비단 후면에 안료를 두껍게 칠해서 앞으로 배어나오도록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은은하고 깊이감이 느껴지는, 고려불화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조선' 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화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만난다. 초기의 불화는 고려의 모습을 품었지만 점점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를 겪고 마침내 지나간 시대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이름을 품었다. 또한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고려불화 대부분이 유실돼 오늘날 전세계를 통틀어 160여 점 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국내 소장분은 10여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며, 때문에 대중이 직접 고려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큰 아쉬움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고려불화는 종교미술을 넘어 한 시대를 지나간 예술로서 세계미술사에 남아 있는 '미술사' 이다. (사)계태사 고려불화 학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혜담 스님은 출가 후 40여 년 동안 고려불화의 복원과 보존, 전승에 매진해왔다. 스님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려불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고려불화의 문화사적, 민족사적, 인류사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

"고려불화를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잊혀진 불교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양에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입체감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모양도 같이 변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선조들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700년, 아니 천년의 시간을 넘어 고려불화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혜담 스님은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 화현의 부촉으로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3년여에 걸쳐 첫 작품을 완성했다. 대작이었다. 스님은 시각적인 외형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불화의 채색기법과 안료를 그대로 복원해 천 년 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조성해 왔다. 스님은 1999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전시를 통해 고려불화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또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수 년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혜담 스님을 초청해 고려불화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불화의 가장 먼 역사와 가장 분명한 뿌리인 고려불화를 복원하고 전승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원력불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불화를 잇는 불화장의 탄생과 스승이 끊어진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혜담 스님의 불사에 많은 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033)638-3721.



혜담 스님 作, 열반상

만해 스님의 황현 추모詩 서대문형무소서 첫 공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展

서대문형무소 3월 19일~4월 21일

"의리로써 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갚으시니(就義從容永報國) / 한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一瞑萬古劫花新) / 이승의 끝나지 않은 한 저승에는 남기지 마소서(莫留泉坮不盡恨) / 괴로웠던 충성 크게 위로하는 사람 절로 있으리(大慰苦忠自有人)"

만해(1879~1944) 스님이 1915년 매천 황현(1855~1910) 선생의 '순국' 을 기리기 위해 쓴 시, '매천선생(梅泉先生)' 이다. '순국' 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인 시절이었다. 만해 스님은 친필을 황현 선생의 유족에게 보냈다. 그리고 시는 황현의 친필 유묵첩 〈사해형제(四海兄弟)〉에 실렸다. 그 아픈 역사를 적고 있는 스님의 친필(복제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10, 12옥사에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展을 연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가장 선명한 흔적,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100년 전 수많은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마련한 전시로, 그동안 문화재청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항일독립문화재 발굴성과로 탄생한 항일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 모았다. 경술국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까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문화재에 깃들어 있는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들어가며 △1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 △2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 △3부 광복, 환국으로 구성했다.

1910년(경술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아갔다. 경술국치. 시대의 아픔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황현 선생은 9월 10일 절명시(絶命詩)와 유서를 남기고 순국했다.

"어지러운 세상에 떠밀려 백발의 나이에 이르도록(亂離滾到白頭年) /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네(幾合捐生却未然) /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今日眞成無可奈) / 바람 앞의 가물거리는 촛불 푸른 하늘 비추누나(輝輝風燭照蒼天)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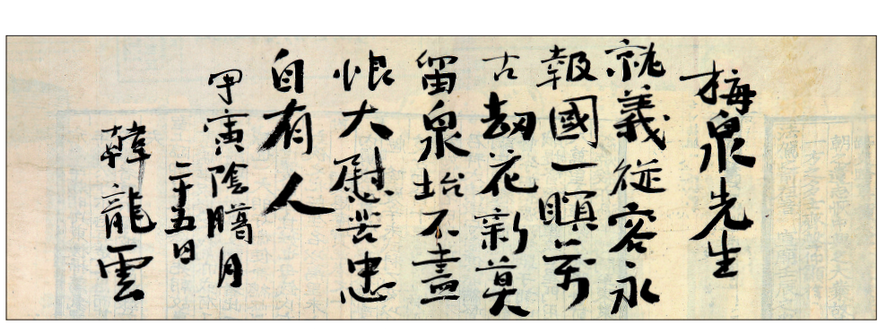
용성 스님과 3.1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에 독립혼을 심는 데 앞장서온 만해 스님은 고결한 황현 선생의 순국을 몇 해 후 진한 검은 글씨의 추모시로 다시 기억한다.

전시 도입부인 '들어가며' 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선 말기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의 유물이다.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한 황현 선생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절명시' 와 그의 후손들이 100여 년 동안 간직해온 황현의 친필 유묵첩 '사해형제' , 신문자료를 모은 '수택존언(手澤存焉)'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 '사해형제(四海兄弟)' 에는 황현 선생의 순국을 애도한 만해 스님의 추모시 '매천선생(梅泉先生)'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수택존언(手澤存焉)' 은 황현의 저서 '매천야록(梅泉野錄)' 중 안중근 관련 집필 기초 자료로 안중근 의사(1879~1910)의 공판기록과 하얼빈 의거 전에 남긴 시가 꼼꼼히 담겨 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종의 국장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100년 전, 고종 황제의 국장(가제)' 등도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이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국민이 항일독립 문화재에 선명하게 새겨진 애국선열들의 조국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항일독립 문화재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600-0064.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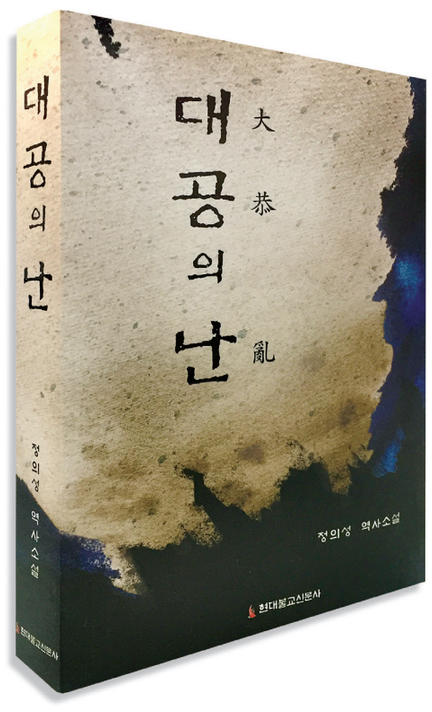
만해 스님이 황현의 순국을 추모한 시 '매천선생' 친필.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